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음 7월 12일) 제211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태풍 '솔릭' 복상... 전북도, 비상체제 돌입

내일부터 직접 영향 예상 송 지사 "사전대비 분야별 비상체제 가동 유지해야"

전북도가 제19호 태풍 '솔릭'의 직접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이날 즉시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등 태풍대비 사전점검 총력 태세에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는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국, 원장을 대상으로 상황판단 및 긴급 대책점검회의를 갖고 "일단 모든 분야의 행정은 물론 도민들과 공유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며 "태풍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분야별로 시군과 협조체제를 풀가동해 사전대비에 총력을 기울여라"면서 "비상체제를 가동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6년 만에 전북을 관통하는 이번 태풍은 크기는 중형급이지만 강도는 강한 태풍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각 실국별로 조목조목 대처계획을 점검하고 살겠다. 아울러,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대책과 산사태 위험지구 대비대책, 이재민구호 및 재해구호물품 지원대책,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구급대책 등 태풍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정면으로 관통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도가 기상정보 및 태풍상황을 예의주시하며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21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양 부지사를 비롯하여 실국 국장들 태풍 상황판단 및 대책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조목 대처계획을 점검하고 살겠다. 아울러,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대책과 산사태 위험지구 대비대책, 이재민구호 및 재해구호물품 지원대책,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구급대책 등 태풍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조목 대처계획을 점검하고 살겠다. 아울러,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대책과 산사태 위험지구 대비대책, 이재민구호 및 재해구호물품 지원대책,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구급대책 등 태풍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조목 대처계획을 점검하고 살겠다. 아울러,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대책과 산사태 위험지구 대비대책, 이재민구호 및 재해구호물품 지원대책,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구급대책 등 태풍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금융산업 혁신성장 방안 논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사조포럼(대표의원 정동영)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항공운송산업과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장벽!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허의영 항공대학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각각 창업 활성화, 항공운송산업·금융산업 진입장벽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호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등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경제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화장품 제조업체, 정읍 첨단과학산단에 '등지'

피에스비바이오, 20억원 투자 9월부터 공장운영 돌입

미생물기반 화장품 제조회사 피에스비바이오(주)(대표이사 남궁수중)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새로 등지를 들었다. 피에스비바이오(주)는 총 20억원을 투자해 3,895㎡ 부지에 미생물 배양 시설, 화장품 원료 제조 시설 및 물류센터 등을 갖추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공장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04년 사업을 시작한 피에스비바이오(주)는 PSB, PSBIO, IUUB라는 독자적 브랜드로 국내 미용시장을 개척하여, 80여 개 대리점 및 면세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이다.

이번 정읍 본사·공장 신설은 수주 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를 위

하여 이루어졌으며, 중국 현지법인 설립, 태국 FDA 인증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가파른 성장에 기대된다.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에는 이원컴포텍(주), (주)스리에이씨,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 등 총 30여 개 기업체가 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또는 건축 준비 중에 있으며, 10여 개의 기업체와 투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는 앞으로 3대 국책연구소와 LH,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함께 우량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연말 내 분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즉각 사퇴의 뜻 밝혀

학력위조, 은처자(승려논은 아내와 자녀) 의혹 등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온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이 21일 "산중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다"며 즉각 사퇴의 뜻을 밝혔다. 설정 총무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한국 불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종단에 나왔지만 뜻을 못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시스

학력위조, 은처자(승려논은 아내와 자녀) 의혹 등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온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이 21일 "산중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다"며 즉각 사퇴의 뜻을 밝혔다. 설정 총무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한국 불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종단에 나왔지만 뜻을 못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시스

여자배구, 2연승 '쾌조'... 내일 중국과 일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카자흐스탄전 3-1로 이겨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예선에서 기분 좋은 2연승을 기록했다.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봉카르노(GBK)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B조 예선 21점을 올렸고, 박정아(13점)와 김수지(13점), 김연경(12점), 양효진(11점)도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한국은 블로킹과 서브에이스에서 15-5, 11-7로 우위를 점했다. 한국은 23일 조 1위를 놓고 중국과 일전을 치른다. /뉴시스



21일 카자흐스탄과 B조 예선에서 승점을 올리고 기뻐하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21일 카자흐스탄과 B조 예선 21점을 올렸고, 박정아(13점)와 김수지(13점), 김연경(12점), 양효진(11점)도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한국은 블로킹과 서브에이스에서 15-5, 11-7로 우위를 점했다. 한국은 23일 조 1위를 놓고 중국과 일전을 치른다. /뉴시스

21점을 올렸고, 박정아(13점)와 김수지(13점), 김연경(12점), 양효진(11점)도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한국은 블로킹과 서브에이스에서 15-5, 11-7로 우위를 점했다. 한국은 23일 조 1위를 놓고 중국과 일전을 치른다. /뉴시스

청년 여성 안심주택 제공

전주시, 중화산동에 토지 임대부 리모델링 15가구 규모

전주시가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 여성 근로자와 여대생들을 위한 안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중화산동 일원의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사회주택 1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형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사업'은 시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를 매입하거나 공공 부지를 활용해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20년까지 임대하면 사업시행자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회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은 예수대학교와 기전대학교,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예수병원 등 청년 여성 근로자와 대학생이 많은 곳으로, 시는 사회주택을 여성 청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 안심주택으로 제공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를 통해 이번 2018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운영 사업시행자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정했으며 지난 17일에는 선정된 해당 토지(건물)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주시에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토교통부에 주거관련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민달팽이협동조합(이사장 임소라)과 함께 동완산동 시 소유주택을 활용해 청년 셰어하우스 사회주택 6가구를 공급했으며, 지난 4월에는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사회주택사업으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팔복동 소재 다세대주택 2개 동 1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6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임채준 시 주거복지과장은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 주택공급 사업인 만큼, 공급사업자와 함께 다각적인 공조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거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